



2015년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변화와 시사점

이소양 연구원

- 2015년 1월 14일 독일 보험금융회사인 Allianz는 2015년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변화를 분석한 "Allianz Risk Barometer Top Business Risk 2015"¹⁾를 발표함.
- Allianz에 따르면 2015년 영업활동 및 공급체제 중단²⁾, 자연재해, 화재 및 폭발 등 전통적 기업 리스크는 기업 리스크 중요도 순위에서 2014년과 같은 1~3위를 유지하고 있음.
 - 상기 전통적 기업 리스크는 EMEA(유럽, 중동과 아프리카 포함), 아메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3년 연속 기업 리스크 중요도 상위 3위 안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2014년과 달리 사이버리스크,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격변 및 전쟁 등 기업의 리스크 중요도 순위는 2015년에는 크게 상승함.
 - 사이버리스크,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격변 및 전쟁의 중요도 순위는 각각 2014년 8위, 18위에서 3위, 9위가 상승한 2015년 5위, 9위로 나타남.
 - 사이버리스크의 중요도 순위는 2015년에는 처음 상위 5위 안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.
- Allianz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이버리스크,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격변 및 전쟁 등 기업의 리스크 중요도 순위 변화를 명확히 식별하고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함.

1) 동 보고서는 Allianz는 전 세계 47개 국가의 516명의 리스크 관리 매니저와 보험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성됨.
2) 이는 재해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및 공급 차질로 인한 리스크를 말함.

〈표 1〉 2015년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 중요도 순위

구분	2015년 순위		2014년 순위	응답비율	% 변동	순위변동
1	영업활동 및 공급체제 중단	46%	1	43%	+3%	—
2	자연재해	30%	2	33%	-3%	—
3	화재 및 폭발	27%	3	24%	+3%	—
4	입법 및 규제 변화	18%	4	21%	-3%	—
5	사이버범죄 및 IT실패	17%	8	12%	+5%	↗(3)
6	평판 및 브랜드가치 손실	16%	6	15%	+1%	—
7	시장침체 또는 축소	15%	5	19%	-4%	↘(2)
8	경쟁심화	13%	7	14%	-1%	↗(1)
9	정치적 또는 사회적 격변 및 전쟁	11%	18	4%	+7%	↗(9)
10	도난, 사기 및 부패	9%	9	10%	-1%	↘(1)

주: 수치는 총 응답자(516)중 응답비율임.

■ 과거 영업활동 및 공급체제 중단, 자연재해, 화재 및 폭발 관리 실패에 따른 손실을 감안할 때, 글로벌 기업들은 보험계약을 통해 사후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함.

- Allianz에 따르면 2009~2013년 글로벌 기업의 영업중단 및 공급사슬 관리 실패에 따른 평균 보험금청구액은 136만 달러로 글로벌 기업의 직접적 재물 손해에 따른 평균 보험금청구액인 103만 달러보다 32%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자연재해의 경우 2011년 일본 대지진, 태국 홍수 등 아시아 지역의 자연재해로 약 2,94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상금은 53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.
- 2013년 화재 및 폭발 관련 배상책임보험사건은 비(非)자연재해 관련 20대 배상책임보험사건에서 8개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40억 달러를 기록함.
-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상호 연관성이 증가하고 있어 상기 전통적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실패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의 지속적인 보험계약 체결이 요구됨.

■ 글로벌 기업들은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이버리스크 관리 역량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함.

- 사이버리스크란 사이버범죄나 사이버테러로 인한 유무형의 발생 가능한 손실로, 기업이 보유하는 개인의 신원, 금융 및 보험정보 등 민감한 자료의 유출, 도난,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한 정보의 손실 등을 예로 들 수 있음.³⁾

3) 김진역·전용식(2014. 2), 「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대응방안」, 보험연구원.

- Allianz는 사이버리스크 피해에 대한 과소평가, 사이버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예산 부족과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글로벌 기업의 사이버리스크 관리 역량이 매우 미흡하다고 경고함.
 - 소니(Sony)는 2011년 해킹 사건으로 7,700만 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도 해킹 사건으로 7,500만 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바 있음.
 - 이에 따라 Allianz는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의 모니터링 수단 및 접속 방식 개선과 직원의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사이버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후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.
- 또한 EMEA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격변 및 전쟁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.
- 2014년 EMEA 지역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영토분쟁, 중동 이슬람국가(IS)에 대한 공습,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태국의 정정불안 등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격변 및 전쟁은 2015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.
 - 이에 따라 EMEA 지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격변 및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사슬 중단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.

(Allianz 등)